현단계 한국문헌정보학의 발전전략

A Developmental Strateg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in its Present Stage

김 정 근(Jung-Gun Kim)
이 수 상(Soo-Sang Lee)*

목 차

1. 서론
2. 현단계 사회환경의 변화
   2. 1 학부제 논의
   2. 2 미래도서관 논의
3. 탈식민성의 획득
   3. 1 주체적인 학술연구
   3. 2 학술운동의 전개
4. 결론

초 록

이 연구는 현단계 한국문헌정보학이 각종 사회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가지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첫번째는 주체적인 학술연구의 전략으로서, 연구자들이 기존의 학술논문쓰기 방법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도서관과 관련기관의 일상생활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유롭고 쉬운 양식의 글쓰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낙후된 도서관현장의 발전에 참조가 되는 방향에서 외국의 원전을 읽고 번역하는 전략도 함께 제시하였다. 두번째는 학술운동의 전략으로서, 연구자와 현장사서들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의 학문적 내실을 다져내며 한국문헌정보학이 한국사회과학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writers have explored developmental strategie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which would flexibly cope with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They have identified two fronts in the struggle to improve the conditions in the present developmental stage of their academic discipline, i.e., self-reliance and 'movement' orientation.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접수일자 1997년 3월 5일

1. 서 론

어느 학문이든 내외적인 사회환경에 적응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특히 특정한 사회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 분야의 학문은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한국문헌정보학은 내외적인 사회환경의 틈바구니 속에서 실로 엄청난 변화의 과정을 겪어왔다고 할 수 있다. 광복이후 한국 근대화 장치의 하나로서 도서관학이 성립된 이래 서구학문을 추종하는 양상은 더욱 고착되었으며, 미시적인 정보처리나 관리기술로 대표되는 정보학이라는 신기루로 인해 고유한 학문성이 상실될 정도가 되었다. 또한 도서관학이라는 학명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어 급기야 문헌정보학으로 변경되기도 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것이 몰고올 파장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수렴의 과정이 있어 왔다면, 지금과는 사정이 달랐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고 그동안 비판적이고 자성적인 분위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학계의 공론속에서 진지하게 검토되고 실천하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본다. 그러기에 현단계 한국문헌정보학은 다음의 인용문이 가리키는 바대로 위기적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문헌정보학 이제 사양학문이 아니겠어요. 별로 비전도 없고 취직도 힘들고 그러니 어디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할까요. 나중에 대학입학 수요가 적어지면, 학생 들 유치하기가 쉽지 않을걸요.[1)]

깊이있는 논증을 제시하면서 행해진 발언은 아니지만, 문헌정보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필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무언가 어색한 기분을 숨길 수가 없었다. 물론 학문으로서 문헌정보학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축적된 것이기에, 위의 발언은 틀린 진단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을 지탱하고 있는 도서관 현장에 종사하는 중견사서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발언이고 보니, 현단계 한국문헌정보학에 가해지는 어떤 위협적인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아주 무리한 것이 아닌 다소 일리가 있는 진단이라면 한국문헌정보학계는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먼저 현단계 한국문헌정보학에 가해지는 사회환경의 변화들 중 심각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한국문헌정보학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다. 그런 다음 위기의 학문이 아닌, 보

1) 이 인용문은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난 P대학도서관의 중견사서와 나눈 대화(1996년 10월)에서 얻어진 것이다.

다 발전적인 학문을 지향하는 최근의 담론과 실천적 행동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현단계 한국문헌정보학의 발전전략을 정리하여 이를 공론화시키고자 한다.

2. 현단계 사회환경의 변화

현단계 우리 학문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들은 많다고 볼 수 있다. 그것들은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개혁바람으로부터 유래되기도 하며, 사회문화의 변화에 연유되고도 있다. 이와 같은 사회환경의 변화들 중에서 우리 학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실로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육개혁의 이름으로 다가온 학부제와 미래도서관으로 대표되는 변화는 우리 학문의 위상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2. 1 학부제 논의

학부제는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안으로 제기된 한국 대학교육개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개혁안에 따르면, 학부제란 지금까지의 대학 교과과정의 기본단위로 하나의 학과만을 둘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개 이상의 유사학과를 통합한 학부를 두게 된다. 또한 학부밑에는 학과를 둘 수 없고, 2개 이상의 전공분야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학부는 여러개의 학과를 통합한 대과(大科)의 의미를 가지며, 학부를 이수한 학생은 ○○학부(○○전공)으로 표기하여 졸업하게 된다. 이것은 70년대 소개되어 80년대에 폐지된 영국식 학제인 계열별 편제와는 다른 미국식 교육편제를 따른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과단위의 세분화된 교육과정이 아니라 유사한 학문영역을 하나로 묶는 개념이다. 물론 그러한 개편의 이면에는 대외적인 교육시장개방 압력과 대내적인 교육수요(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대응정책이라는 논리가 숨겨져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졸속적이고 바람몰이식으로 학부제를 시행함으로 인해 시행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교육학자인 이성호는 한겨레신문 논설(1995. 10. 9) '바람몰이식 대학개혁 지양을'에서 대학에서 불고 있는 개혁의 바람, 이를테면 '학부제 및 계열화'라는 학과통합 움직임은 왠지 불시에 불다 그치는 돌풍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제도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몇사람이 모여 앉아 후딱 해치워서는 안되며, 심사숙고를 요하는 것이다. 둘째, 대학이 정부의 개혁안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차등해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이 문제이다. 셋째, 각 대학은 우선 자신들의 고유한 교육이념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맞는 개혁을 내세워야 하는데 무분별한 경쟁에 휩싸여서 생각없이 개혁을 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무튼 시행 자체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들이 너도나도 학부제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학과의 화학적 결합보다는 기계적이고 강압적인 통합으로 인해 대학의 이념이나 학문적 전통이 송두리채 흔들리게 되는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누구나 다 예상했던 것으로서 인기위주, 취업우선적인 전공선택으로 인해 많은 전공분야가 학생들로부터 소외당하게 될 지경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학문을 둘러싼 사회적 기반이 허약한 상황에서는 대학의 울타리를 벗어난 학문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문적 전통에서는 인기없는 학과, 취업보장이 없는 학과는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위기에 직면할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하나의 국가 또는 사회라는 커다란 체제에서 보면, 학문은 편식되어서는 안되며 제각기 독자성을 가짐과 동시에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기학문만 살고 비인기학문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논리나 다름없는 것이다. 학문이 한 번 쓰고 마는 상품이 아닌 바에 당대의 인기도에 좌우되도록 그렇게 내몰고 있는 요즈음의 교육개혁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현재 한국문헌정보학에 있어 학부제 도입에 따른 문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 현 시점에 있어 학부제를 적용하지 않은 대학이 많으며,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행초기이므로 그것을 평가하기가 이른 것으로 여겨진다.[2] 한편, 1996년 6월 21-22일 양일간에 걸쳐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주최의 세미나에서 학부제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다. 초창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헌정보학 발전의 일익을 담당해왔던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의 학부제 도입사례를 검토하는 자리였다.[3] 이들 세 학교의 사례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으로는 문헌정보학 전공영역이 대학마다 다른 학부에 편성되어 있으며, 성격도 다르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학문의 특성보다는 대학의 사정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학문의 논리보다는 대학(의 편의)논리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시작부터 커다란 문제발생의 소지를 가지게 되었다. 만일 학부제의 도입이 피할 수 없는 변화라고 한다면, 이들 세 학교의 사례는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기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는 기존의 인문대학에 소속된 11개 학과를 묶어 인문학부로 개편하고 각 학과를 세부전공영역으로 설정하고 있

2) 한국문헌정보학을 학과중심제도에서 학부제로 전환함에 있어 나타나는 장·단점 및 당면과제 등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좋은 참조가 된다. 구본영, "한국문헌정보학의 학부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권 2호 (1996. 6), pp.3-50.

3) 당시 세미나의 발표논문요지에 실린 학부제 관련 논의는 다음과 같다. 한상완. "학부제 실시와 문헌정보학의 진로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중심으로", pp.19-33. 최석두. "학부제에 따른 문헌정보학의 제반 문제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을 중심으로", pp.34-40. 이은철. "학부제 도입에 따른 문헌정보학 교육의 제문제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중심으로", pp.41-51.

다.[4]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사회과학대학 내 사회과학부의 6개 전공영역의 하나로서 설정하고 있다.[5] 성균관대학교는 인문대학의 인문학부내에 철학, 사학과 함께 전공영역을 편성하고 있다. 이처럼 세 대학이 제각기 다른 형태로 문헌정보학전공의 학부제로 재편된 사실은 향후 학문성의 정립에 있어 많은 문제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겠다. 그것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의 양상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 내에서 타 전공과의 경쟁도 문제이거니와 대학간의 문헌정보학에 대한 학문적 성격규명에 있어서도 혼란이 예상되기에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 다음의 지적은 그 여운이 길게 드리워진다고 하겠다.

> 특히 학부제의 도입여부와 학부제를 도입할 경우 문헌정보학과(전공)가 어디에 편제되어야 할 것인지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대처방안이 마련되지 못한채 각 대학이 처해 있는 고유한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6]

2. 2 미래도서관 논의

미래도서관에 대한 논의는 기술의 근대성을 넘어 탈근대성의 논리로서 도서관이라는 사회적 지식체계를 위협하고 있다. 현실적인 도서관은 아직 식민지적 상황, 전근대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저수준의 상태에서 갑자기 불어닥친 과장된 기술의 발전논리에 휘말려 도서관의 본질이 왜곡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7] 인쇄매체의 종말, 급기야 도서관의 종말까지도 예고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문으로서의 문헌정보학은 실로 존폐위기에 직면해 있다. 아래의 인용문은 도서관과 관련된 미래예측의 한 단면을 잘 나타내고 있다.

> 전화는 편지쓰기를 몰아내고, 텔레비전은 동네 극장의 관객을 감소시켰다. 엠티브이(MTV)와 슈퍼 스타들은 아마추어 음악가들과 지방 음악가들의 활동 영역을 축소시켰다. 자동차는 도심의 전차시스템을 파괴했다. 고속도로는 철도의 객차 운행을 감소시켰다. 비행기는 여객선을 밀어냈다. 그러면 광역통신망으로부터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 도서관이다.[8]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미래도서관은

---

4) 인문학부내에는 국어국문, 중어중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불어불문, 노어노문, 사학, 철학, 사회학, 심리학, 문헌정보학 등의 11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단 사학 전공의 경우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5)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인문과학대학에 있었다. 그러나 1995년 10월 사회과학대학이 신설되고, 그 속의 학과로서 문헌정보학과가 존재하다가 이듬해 3월 학부제로 편성되었다. 문헌정보학이 포함되는 사회과학부에는 행정학, 정치외교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신문방송학 등이 함께 개설되어 있다.

6) 이은철, 앞의 글, p.42.

7) 우리나라 도서관, 특히 대학도서관에 대한 근대성의 좌절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면 된다. 이수상, "대학도서관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주제발표논문집 (한국도서관협회, 1995), pp.119-135.

8) Clifford Stoll, 허풍떠는 인터넷, 한경훈 옮김 (서울 : 세종서적, 1996), p.248.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아니 한국과 같은 좌절된 근대화의 상징처럼 보이는 도서관의 현단계에서 미래도서관담론은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야 하는가, 그렇게 도서관이 사라지고 말도록 일조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차피 사라질 것이 뻔하므로 자포자기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자명하다. 제국주의적 논리, 물질문명 중심의 자본주의 논리로서 도서관을 위협해 오는 기술적 근대성은 단지 한 시대의 산물일 뿐, 현단계 우리의 도서관이 설정해야 할 유일한 발전방향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도서관을 말살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그에 따르는 학문도 사라질 수 밖에 없다. 대학도서관과 관련시켜 본 다음의 인용문은 정보기술 도입문제에 대해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일각에서는 각종 정보기술을 재빠르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대학도서관의 근대성은 확보되고 사회적 개혁바람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첨단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전근대적인 상황을 탈피하려는 그러한 시도는 한술 더떠 탈근대성을 획득하여 도서관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다는 환상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현단계 우리에게 있어 정보기술은 근대성의 신화도 아니요 탈근대성의 상징도 절대 아니다. 근대성이란 모든 면에 있어 양적/질적 수준이 축적된 결과라면, 탈근대성은 근대성의 과잉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한국대학도서관이 양적/질적 풍요도 겪어보지도 못한 채 근대나 현대를 뛰어 넘어 탈근대를 지향한다는 것은 환상이요 무지인 것이다.[9]

우리 분야의 몇몇 사람들은 그동안 사회로부터 외면받아온 도서관이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미래도서관을 받아들이기도 하는 듯하다. 그래서 도서관의 미래가 그렇게 설정될 것이니 지금이라도 학문의 성격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자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학문을 자멸의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지, 올바른 발전방향이 되지 못한다. 학문의 전통, 학문의 기반이 무너지면 그 학문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다소 발전단계의 차이는 있으나 미국도 미래도서관을 그렇게 설정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 다행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미국 학계의 거물인 크로포드(Walt Crawford)와 고어먼(Michael Gorman)은 최근에 발간한 저서에서 미래도서관은 기술지향의 전자도서관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유형의 자료를 다양한 서비스로 제공하는 데 성공한 도서관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미래도서관을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다.

> 첫째, 미래는 인쇄매체와 전자매체의 커뮤니케이션이 공존한다. … 둘째, 미래는 일차원적인 텍스트와 하이퍼텍스트가 공존한다. … 세째, 미래는 사서에 의한 중개와 직접접근이 공존한다. 네째, 미래는 소

9) 이수상, 앞의 글(1995), pp.125
10) Walt Crawford & Michael Gorman, Future Libraries: Dreams, Madness & Reality, (Chicago : ALA, 1995), pp.180-181.

장과 접근이 공존한다. 다섯째, 미래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과 인터페이스로서의 도서관이 공존한다.[10]

도서관을 연구하는 학자는 아니지만, 앞에서 언급한 스톨(Clifford Stoll)도 균형을 잃은 미래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단호히 말하고 있다.

그보다도 나는 컴퓨터가 도서관을 내부에서부터 악의적으로 잠식해 들어오지 않을지 걱정된다. 컴퓨터는 책 구입비를 삼키고, 아이들이나 학자들과 부딪치기보다는 컴퓨터 조작을 더 좋아하는 사서들을 요구할 것이다. 도서관은 점점 저질 정보를 고속으로 일반에게 공급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책없는 도서관이 아니라 가치없는 도서관이 될 것이다.[11]

만일 우리가 미래도서관에 대해 잘못 인식하게 되면, 도서관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자체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12] 미래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우리 학문의 터전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우리 학문의 연구대상을 다른 무엇으로 대체(replacement)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논리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립될 수 없는 논리이다. 결국 도서관의 가치상실은 문헌정보학 자체의 사회적 가치도 함께 사라지게 할 뿐인 것이다.[13] 그러기에 도서관의 정보기술의 도입에 대한 어셔우드(Usherwood)의 다음과 같은 우려섞인 충고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출현과 발전에 따라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가 정보라고 부르는 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배포에 관한 문제와, 어떻게 우리가 공공 서비스에 의한 정보 제공의 기준과 원칙을 유지해야 하는가의 문제-실제로. 우리가 이를 유지해야 한다면-, 새로운 기술이 각 시민의 생활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관한 문제, 정보산업의 구조와 소유권 및 관리와 그것이 우리가 입수하는 메시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 새로운 기술이 사회생활과 인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 등이 포함된다. …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그와 같은 기술을 에워싸고 있는 요란한 마력

11) Clifford Stoll, 앞의 책, pp.305-306.

12) 도서관현장에 근무하는 사서들의 입장에서 본 미래도서관은 전국사서협회 창립5주년 기념세미나(경주 교육문화회관, 1995. 12. 3)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있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당시의 주제발표와 토론발표 내용은 정리되어 전국사서협회소식 5권4호(1996. 3)에 수록되어 있다.
- 주제발표 : 이수상, "미래도서관, 현실인가 환상인가 - 우리 사서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토론발표 : 조왕근, "미래의 도서관에 대한 우리의 환상 - 디지털도서관이 만능의 해결사는 아니다!". 이용훈, "미래의 도서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13) 위의 전국사서협회 창립 5주년 기념세미나 자료 이외에도 미래도서관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요구하는 글들이 최근 들어 발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김정근 · 이용재, "참을 수 없는 '미래도서관 담론'의 가벼움", 도서관문화 37권 4호 (1996. 7.8), pp.4-29.
- 김정근 · 김종성, "계몽의 아침에 꾸는 악몽 - 도서관의 미래에 한국문헌정보학은 희망인가?", 도서관 (1996. 가을), pp.31-55.
- 김정근 · 김영기, "다시 한 번 '미래도서관 담론'에 대하여", 도서관문화 37권 5호 (1996. 9.10), pp.17-31.

> 과 지나친 상업주의로부터 생겨나는 잡음 때문에, 우리는 자칫 도서관과 정보 및 교육 서비스에 이를 적용할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많은 사회 경제적 결과를 간과해 버리게 된다는 사실이다.[14]

한국문헌정보학을 둘러싼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의 결과는 전적으로 우리가 자초한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학계에도 일부분의 책임은 있다고 본다. 그와 같은 환경변화에 심각하게 대응해 보지도 않은 채, 그것이 진정한 우리 학문의 발전논리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쉽게 적응하거나 유행인양 조급하게 따라가 버리는 양상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도서관의 정보기술 도입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경향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 문제는 그동안 우리 도서관계가 각종 사회기술환경의 변화에 너무 경솔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도서관과 관련된 기술적 도약이 있을 때마다 유토피아적 환상을 거론해왔다. 그러나 그것을 현단계 우리 도서관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실천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현장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대처해온 것같다. 도서관의 내용이나 성격은 다소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본질이 변하면, 그것은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것이 대체되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발전의 법칙이기도 한 것이다.[15]

결국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문헌정보학은 커다란 전술상의 오류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다시금 학문의 독자성 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유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한국문헌정보학이 그동안의 성장과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배태시켜 온 구조적인 취약성 즉, 학문적 식민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한국문헌정보학에 노정되어 있는 식민성을 과감하게 걷어내는 일은 현단계 우리 학문을 보다 굳건하게 지켜 내며, 학문적 성숙을 담보하는 필연의 논리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또한 그것은 한국문헌정보학이 사회환경 변화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수준있는 학문성과 사회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니 지금보다는 더욱 다른 새로운 학문으로 변혁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3. 탈식민성의 획득

문헌정보학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학문, 특히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문은 알게 모르게 식민지적 상황에 처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식민성을 극복한 주

14) Bob Usherwood, 정보사회와 공공도서관, 오동근 역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6), p.179.
15) 이수상, "미래도서관, 현실인가 환상인가 - 우리 사서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전국사서협회소식 5권 4호 (1996. 3), p.13.

체적인 이론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 학계는 이종각의 지적처럼 국내이론이 부족하고, 외국이론과 대등한 위치에서 대비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하며, 또한 인간관계양식과 학문적 교류에 대한 부조화스러운 규범 등으로 인해 한국의 지식체계가 대내적인 구조적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16]

학문의 식민성 문제는 그 자체만으로 거대한 담론이 될 수 있다. 거기에는 세계 지식체계의 구조와 국가간 지식전이의 문제, 지식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 지식인사회의 이데올로기 문제 등 여러가지 논의들이 포함되는 복잡하고 커다란 테마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부 주요 논자들이 제시한 논의들을 중심으로 그것의 실체를 개략적으로 파악한 후, 우리 분야에서 탈식민성을 획득할 수 있는 실천적인 전략을 모색해볼 것이다.

이종각은 한국사회과학의 식민성을 국제지식체계와 한국의 사회과학지식체계의 구조속에서 파악한 학자이다. 그에 의하면, 사회과학분야의 국제지식체계는 중심(center)과 주변(periphery)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거기에는 불균형성이라는 특징이 개재되어 있다.[17] 중심국가는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소수국가에 몰려 있으며, 그 중에서 미국이 가장 중심에 놓여 있다. 이들 소수의 나라들은 유명한 사회과학자, 학술지, 연구기관, 대학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규모 출판사와 막대한 연구비 지원, 거대한 도서관, 정보처리체계, 박물관 등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인 지식의 표준으로 인정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사회과학지식체계는 국제지식체계의 주변에 머물며, 사회과학자 특히 활동적인 학자들 대부분은 이들 중심국에서 배웠거나 그들이 출판해낸 책과 방법적 도구에 의존하고 있으며, 도서관은 중심국에서 출판해낸 서적으로 비치되어 있다. 대학의 교육내용 또한 대부분이 서양서적의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며, 우리말로 출판된 서적의 대부분은 번안수준을 못넘고 있다. 그와 같은 불평등한 현실구조 속에서는 학문의 식민성이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게 됨은 자명한 이치이다.

조혜정은 한국의 지식인사회, 지식인 담론의 식민지성에 주목한 학자이다. 그녀는 보편적 이론에 대한 집착, 외부의 권위에 기댐, 일상성으로부터 유리된 지식 생산, 눈앞의 현실을 외면하고 내부의 자생적 논의를 경시, 자생적인 지식축적 작업의 소홀 등 여러가지 표현으로 학문의 식민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18]

특히 그녀는 식민지 지식인의 표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식민지 지식인은 식민 종주국에서 만들어진 지식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16) 이종각, 한국교육학의 논리와 운동 (서울 : 문음사, 1990), p.103.
17) 이종각, "국제지식체제와 한국사회과학의 문제점", 사회과학연구(강원대학교) 17집(1982), pp.266-268.
18) 조혜정,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1〉 : 바로 여기 교실에서 (서울 : 또하나의 문화), 1992.
———,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2〉 : 각자 선 자리에서 (서울 : 또하나의 문화), 1994.
———,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3〉 : 하노이에서 신촌까지 (서울 : 또하나의 문화), 1994.

> 수정할 근거도, 필요성도 느끼지 않으며 또 그럴 능력도 없으므로 아예 그가 선호하는 어떤 절대적인 틀을 정해 놓고 그속에서 소비자가 되어버린다. 그 틀안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굳혀 가는 길을 찾는데에만 급급하다. 식민 종주국에서 지식인은 지식의 소비자이자 생산자이지만 식민 지의 지식인은 오로지 소비자일 수밖에 없으며, 자신이 여러모로 값을 치르고 산 지식을 가능한 비싼 값으로 팔고자 할 뿐이다. … 각론은 없는데 총론만 되풀이 외치는 구호적인 사회, 거창한 이론과 전문 용어는 누구보다 잘 외우고 있으면서 막상 자신의 이야기는 할 줄 모르는 이들이 큰 목소리를 내는 세상, '지식 수입상'이 성업 중인 사회에서는 특권층로서의 엘리트나, 책속에 빠져서 소일하는 '학자'는 있을지 몰라도 지식인이 나오기 어렵다. [19]

지금까지 한국문헌정보학은 자생적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쇄도하는 외국학문에 밀려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질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까지 도달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엄밀히 말하면 그동안 우리는 외국의 이론에 종속되어 주체적인 학문을 뿌리내리는데 너무 소홀히 해왔다. 그러므로 우리 학문이 외국학문의 종속변수가 아닌 당당한 독립변수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단계 한국문헌정보학의 핵심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학문의 식민성을 극복하여 주체성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문방법론을 계속 답습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것은 지나온 역사적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문의 식민성을 극복해내는 현실적인 전략은 어떻게 수립하여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한 대답의 하나로서 제시되는 것이 바로 탈식민성 담론 또는 탈식민주의라 할 수 있다. 서구라는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경향에 대해 장수익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탈식민주의는 탈구조주의 또는 해체주의의 영향하에 과거의 식민주의적 담론 및 그에 의해 생산된 텍스트들을 비판 내지는 해체함으로써 보다 다원화되고 탈중심화된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담론 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탈식민주의는 「근대적 담론=서구적 담론=보편적 담론」이라는 등식을 공격하면서 서구중심주의와 나아가 그것을 만들어 낸 이성중심주의를 해체한다. 이러한 탈식민주의의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우선 보편성의 너울을 쓰고 있는 서구의 텍스트를 다시 읽음으로써 그에 내재된 식민주의적 인식 체계를 폭로하고 해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그러나 탈식민주의는 서구적 담론에 의해 생산된 텍스트만을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식민지에 침윤된 식민지인들의 여러 텍스트 역시 해체하는 데 있다. 식민지의 지식인들 또한 서구적 교육을 받으면서 서구적 담론이 보편적 담론이라는 가정을 아무런 스스럼없이 받아들여 식민주의적 담론을 재생산해 왔던 것이다.

19) 조혜정, 앞의 책 〈2〉, pp.24-25.

… 한편 이러한 전략들과 함께 탈식민주의가 또 다른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식민주의의 지배적 담론으로부터 벗어난 또 다른 담론이 형성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다.[20]

탈식민성 담론 또는 탈식민주의는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21] 그러기에 학술연구의 영역에서 보면 그것은 제3세계 학술운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서구적 지식체계의 보편성의 너울을 해체하고 새로운 글쓰기와 글읽기 방식을 제시하는 새로운 양식의 학술활동인 것이다. 그러기에 한국문헌정보학도 그 자신의 식민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학술활동의 양식을 새롭게 변혁시켜야 한다.

첫째, 90년대 한국의 인문사회과학계의 전반적인 경향 즉, 보수적인 아카데미즘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중시하며, 불필요한 형식들을 걷어내어 학술연구의 자유를 구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국문헌정보학이 변모되어야 한다. 둘째, 많은 연구자들이 서구라는 중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글쓰기와 글읽기를 해야 한다. 셋째, 학술활동의 권위를 최대한 낮추어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그들의 일상적인 삶까지도 학술테마로 설정할 수 있는 보다 민주화된 학술활동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새로운 학술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은 어떻게 수립될 수 있는가? 한국문헌정보학을 연구함에 있어 다양성을 추구하며, 연구자들을 해방시키며, 민주화된 학술활동을 담보하는 탈식민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서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두 가지를 제시하게 된다. 첫째, 연구자 개개인이 보다 주체적인 입장에서 학술연구를 해야 한다. 둘째, 한국문헌정보학계가 보다 운동적인 차원에서 현장운동과 연계되는 학술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22] 비록 험난한 길일지라도, 이와 같은 변혁을 위한 실천전략은 한국문헌정보학이 한국사회의 개체도서관을 완성해 나가는 역할을 당당하게 수행해 내어 학문성과 사회성을 견고하게 하는 가장 적합한 선택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20) 장수익, "식민주의를 벗어나는 고뇌의 여로 - 〈만세전〉 읽기", 현대시사상 (1996. 봄), pp.173-174.

21) 이에 대한 권택영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탈(혹은 후기)식민주의는 법적, 제도적으로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니지만 문화적 정신적으로 여전히 식민지가 계속되고 있는 식민지시대 이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비평방식이다'. 권택영, "탈식민주의와 문화비평 - 이론과 실천", 현대시사상 (1996. 봄), pp.76-77.

22) 개인적인 글쓰기 양식의 변화나 학술운동의 전개는 90년대 한국문헌정보학계의 일각에서 제시된 것이다. 아직 공론화가 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향후 한국문헌정보학이 추구해야할 학문방법론 으로서 그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하겠다. 대표적인 문헌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김정근 · 김영기.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도서관학논집 22집 (1995), pp.27-59.
- 김정근 엮음,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서울 : 한울, 1996).
- 이순재, "한국 도서관.정보학 연구의 확대를 위한 소고 - 사회과학적 함의와 관련하여", 도서관문화 31권 6호 (1990. 11.12), pp.29-40.
-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공동작업실, 학기논고집 1집 (1991), 학기논고집 2집 (1992), 학기논고집 3집 (1993), 학기논고집 4집 (1994), 학기논고집 5집 (1995), 학기논고집 6집 (1996).

3. 1 주체적인 학술연구

3. 3. 1 논문쓰기

대개 논문쓰기는 연구자들의 학술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업이며, 그 결과로 생산되는 논문은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최적의 도구이다. 논문은 예로부터 특정한 구조와 형식의 틀을 중요시해 왔다. 이것은 학술활동을 하는 학자들에 의해 은연 중에 합의되어 온 것인지 모르지만, 합리성과 논리성에 기초한 논문쓰기만이 하나의 고정된 패러다임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논문이란 여러가지 글 중에서 가장 합리성과 논리성을 갖춘 양식에 따라 구성되어야 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이와 같은 논문쓰기, 논문이 갖는 구조나 양식에 대한 비판이 우리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합리성과 논리성을 갖춘 논문양식만이 과학이라는 최적의 권위를 갖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양식은 파괴되어야 하며, 보다 다양한 양식의 논문이 인정되는 그러한 구조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논문형식의 파괴, 새로운 양식의 논문쓰기에 대한 대표적인 담론은 조동일, 김용옥, 김영민, 신광현 등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그와 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한국에서의 학술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 및 비판적 평가가 함께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조동일은 '우리 학문의 길'을 제창하면서, 다음과 같이 학술논저 글쓰기의 혁신을 말하고 있다.

> 지금 우리는 학술논저 글쓰기를 혁신해야 한다. 그래야 발상의 전환이 가능하고, 새로운 착상을 생동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치의 근본을 창의적으로 논하는 것이 학문의 근본과업임을 분명하게 하면서, 근본을 살리는 외형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다채롭게 개발해야 한다. 편지글도 쓸 수 있고, 문답도 택할 수 있고, 圖說을 재현할 수 있고, 〈醫山問答〉이나 〈虎叱〉에서 처럼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는 창작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글은 논문이 아니고 문학작품이라고 하면서 배격하지 말자. 문학작품이라도 좋다. 사상의 혁신과 표현의 혁신이 함께 이루어지면, 논문이 작품이고 작품이 논문이다. 그 둘을 엄격하게 갈라놓아 논문이 형식에 그치고, 작품이 공허해졌다.[23]

김용옥은 '하늘 아래 모든 성스러운 법칙 즉 논술의 형식을 부숴버려라. 그리하면 비로소 민중들이 더불어 서로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장자(莊子)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국에서 철학을 하는 논술은 자유롭고 다양한 양식으로 구성되어야 독자의 반응이 있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철학이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비록 철학의 논술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논문이라는 양식의 자유'를 주장하고

23) 조동일, 우리 학문의 길 (서울 : 지식산업사, 1993), p.45.

있다.

> 논문이란 '자기의 주장을 펴서 시비적부(是非適否)를 가리는 글'이며 여기에 어떠한 일정한 양식이 주문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또 자기나름의 체계를 의식하면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양식이 자유롭게 동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지 못한 양식의 고정성은 그 문(文)의 죽음을 의미할 뿐이다.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그들의 철학을 하는데 어찌 요새 한국의 위대한 철학자님들이 말씀하시는 논문으로만 철학을 했겠는가? 서양철학의 제일인자라고 불리는 플라톤선생도 '대화'의 유려한 문장으로 철학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저술에 있어서 플라톤보다는 일정한 논술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여러 양식을 복합시키고 있다. 데카르트도 사담인지 편지인지 수필인지 논술인지 잘 구분 안가는 양식으로 철학을 했고 스피노자도 기하학의 양식과 윤리학의 논술양식을 뒤섞어 철학을 했다. [24]

조동일이나 김용옥은 논문쓰기 또는 글쓰기의 테마에 집중한 글을 쓴 것은 아니다. 다른 논의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그것에 대해 필요한 견해를 밝혔던 것이다. 그러나 김영민이나 신광현은 직접적으로 논문쓰기 또는 글쓰기의 철학이나 그 이면에 있는 이데올로기까지 언급하고 있다. 특히 김영민은 이 문제에 있어 가장 집요한 투지를 보이고 있는 학자이다.

김영민은 우리 학계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풍습으로서 논문중심주의 즉, '논문만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글쓰기이며, 오직 논문을 통해서만 학문성이 보장된다는 지적 허위의식'은 이제는 비판받아야 하며,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과 세상의 제 모습을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의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5]

그가 보는 학자와 논문간의 관계에 대한 의문은 대략 이런 것이다.

> 논문이란 그저 글쓰기의 여러 형태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학인(學人)들이 자율적으로 취사(取捨)할 수 있는 선택 행위에 불과한 것인데도, 논문에 목이 매여 일생을 질질 끌려다니면서 가끔씩 그 목에 힘이나 주는 것으로 체면을 유지하는 우리들, 그 '우리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특권인 양, 혹은 형벌인 양 꾸역꾸역 논문을 쓰면서 근근이 자신의 정체를 인정받는 소위 '학자'들은 대체 누구일까?[26]

그러나 그가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논문폐기론이 아니라 형식숭배주의의 일종인 폐쇄적인 형태의 글쓰기의 지양이며, 수입한 이론 뒤에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숨기는 식민주의적 글쓰기로부터의 탈피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그것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미 서구에서조차 논문같은 중앙 집권적이고 폐쇄적 형태의 글쓰기에 진지한

24) 김용옥 · 최영애, 도올논문집 (서울 : 통나무, 1991), pp.92-93.
25) 김영민, "논문 중심주의와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문학과사회 (1994, 가을), pp.1261-1281.
26) 위의 글, p.1261.

>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 - 가령, 삶의 복잡성과 구체성, 인간 정신을 포함한 모든 텍스트의 역사성, 그리고 글쓰기의 세속성 등 - 가 적지 않은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선배들이 물려준 형식적 강박으로부터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남의 생각을 구걸해서 머리를 채우고 지적 허영을 만족시키던 시기에는 동냥 그릇까지도 구걸했었지만, 이제 생각의 자립을 구하는 우리들은 그릇부터 지금 우리 삶의 실정에 맞도록 고쳐 만들어야 한다.[27]

신광현은 논문이란 근대적 의미의 합리성 추구라는 특정한 필요나 이념아래 형성되었기에 처음부터 편지나 수필 등의 일상생활 속의 글들과는 양식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논문양식이 유일한 혹은 최적의 양식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합리성에 기반한 논문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을 가능케 하고, 그것으로 인해 현재까지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과학적 지식이 많이 축적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러한 양식이 한계지워 놓은 구조에 의해 인간과 사회의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하는 논문이 생산되기 어렵게 한 점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근대적 의미의 '합리성'이나 '객관성', '과학성', '논리성'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새로운 정의없이 논문의 양식을 따를 경우,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도 자연과학적 지식의 모델에 접근하는 지식만 생산되고, 그 모델에서 벗어나는 인식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이다. 예컨대 논문구성이 추구하는 합리성은 대상세계의 우연적인 면을, 일관성은 다원적인 면을, 통일성은 복합적이고 충첩결정적인 면을, 논리성은 합법칙적이지 않은 면을 구조적으로 억압하고 관심영역 밖으로 배제하기 쉽다. 또한 서론-본론-결론의 구성은 결론을 향한 단선적인 전개를 강요함으로써, 대상세계의 다선적이고 다면적인 면을 충분히 존중하기 어렵게 만들기 쉽다. 논문이 인간과 사회에 대해 자신의 짜임새에 부합하는 인식만 허용하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인식은 조직적으로 배제하게 되어 있는 만큼, 그러한 짜임새와 그 짜임새를 지탱하는 '합리적 논리'로 환원되지 않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인식을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학문활동에 포함시킬 수 있는 논문양식의 탐구가 필요해진다.[28]

이와 같은 논문쓰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찾기는 우리 분야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필자들 중의 한사람인 김정근과 그의 제자 김영기에 의해 주창된 '글쓰기의 혁신'이 바로 그것이다.[29] 학문의 실천성을 모색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외래이론의 무의식적인 답습에서 벗어나 보다 한국적인 현실과 터에 기초하는 탈식민성의 기

27) 위의 글, p.1266.
28) 신광현, "대학의 담론으로서의 논문: 형식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 사회비평 4호(1996), pp.180-181.
29) 글쓰기 혁신에 관한 논의들은 다음의 문헌에서 나타난다. 김정근·김영기,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글쓰기의혁신은 가능한가", 도서관학논집 22집 (1995), pp.27-59. 김정근 엮음,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서울 : 한울, 1996).

제로서의 글쓰기 혁신은 주제선정, 연구방법 그리고 문체의 혁신을 지향하고 있다. 글이란 우선 읽기 쉽고 유용한 것이어야 하며, 진솔하고도 의미 있는, 우리 현실의 변혁을 지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정근은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 현재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술적 글쓰기의 병통을 지적하고 있다.

> 우선 우리는 왜 글쓰기를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학술논저를 내는가? 석박사학위를 얻기 위하여? 승진과 재임용을 위하여? 그런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은 그저 습관적으로? 학자입네 하는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유희삼아? 장난삼아?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글쓰기란 이처럼 여유작작한 지적 놀이일 수 있는가? 그것은 과연 형식과 관문앞에 바치는 연중의 행사요, 제사에 지나지 않는가? 과연 그것이 다인가? 그 유희성, 형식, 관문의 너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일도 없고 실질도 없단 말인가? 우리는 글쓰기를 통하여 그 이상 아무것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없단 말인가? 그러하다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글쓰기를 업으로 삼는 연구자에게는 사회적 책임이 통째로 면제되어 있다는 것인가? 이 나라 인문사회과학에의 참여와 기여문제는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인가? 현장사람들이 우리들의 글쓰기를 좋아하든 말든 그것도 상관없다는 말인가?[30]

이와 같은 주체적인 학술연구에 대한 논의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학술활동은 오로지 상아탑이라는 대학의 울타리내에서 통용되는 언어양식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언어양식까지 포함하는 '양식의 혁신'을 말하고 있다. 기존의 논문양식을 충실히 따라야만 논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필도 논문이 되고, 소설도 논문이 되고, 가상시나리오도 논문이 되어야 한다. 결국 논문은 인간과 사회의 생활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글쓰기라면 어떠한 양식도 통용되어야 하기에, 글쓰기의 자유, 학술연구의 자유를 지향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그렇게 함으로써 글을 쓰는 주체는 합리성이나 객관성이라는 권위의 이름 뒤에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상상력, 나의 창조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요컨대 논문은 객관적 주체들간의 권위의 대물림이 아니라 연구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 모두의 상상력과 창조성이 개발되는 보다 개방적인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셋째, 너와 나의 존재를 진솔하게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터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며, 결국 학문의 현실적합성이 추구될 수 있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에 대한 주체적인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하므로 기존의 학술활동이 노정하고 있는 식민성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논문의 탈식민성을

30) 김정근, "한국문헌정보학의 위상정립과 교수협의회의 역할 - 우리 학문의 실천성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하계세미나 발표논문요지(1996. 6. 21. 대전 유성호텔), pp.5-6.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주체적인 학술연구는 현단계 한국문헌정보학과 한국의 도서관현장이 처해있는 복잡성과 구체성에 보다 접근하는 한국적인 학문, 주체적인 학문을 해나가는데 핵심적인 실천전략의 하나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3. 1. 2 원전읽기와 번역하기

한국문헌정보학 분야와 같이 자생적 학문이기보다 외래적 학문의 성격을 지닌 경우는 원전읽기와 번역하기가 논문쓰기 이상의 중요성을 가질 수도 있다. 특히 근대적 의미의 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해 본 경험이 부족한 한국의 도서관현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의 좋은 경험과 사례에 대해 많이 알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읽고 번역하여 한국도서관의 발전에 참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 그것이 곧 진리인 것처럼 여기거나, 잘못 읽어 소개하거나 번역하는 경우는 발전보다는 도리어 퇴보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서양의 대가는 서양의 문화에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서양의 대가가 곧 우리의 대가가 될 수는 없다. 그러기에 외국의 원전은 서양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제로서, 우리 문화의 발전을 추구하는 참조도구로서 한정시켜야 함은 당연한 노릇이다.

언젠가 우리나라는 어족자원의 증식이라는 목적으로 외국의 물고기를 도입한 적이 있다. 그 중에서 담수어로는 블루길, 배스, 떡붕어 등은 우리의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그 피해가 아주 커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지금도 그러한 문제는 여전하다고 한다. 특히 양서류인 황소개구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60년대에 들여온 블루길, 배스, 떡붕어 등은 내수자원을 조성한다고 한강의 청평댐에 방류하였으나, 큰 효과를 얻지 못해 중단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때 살아남은 물고기들이 한강 중류에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소개구리도 애초의 목적인 소득증대는 고사하고 그대로 자연에 방출되어 생태계의 균형 뿐만 아니라 외래종과의 자연교잡에 따라 유전적 교란을 일으켜 다른 종을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는 외국의 문헌들을 도입하는 문제와 성격이 다를 수 있으나, 그것이 주는 교훈은 우리의 학술활동에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사실 우리나라 학술활동에 있어 외국문헌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세계지식체계의 주

31) 지식체계의 주변국 학자들에 대해 양(洋)박사와 토(土)박사라고 구분하는 말이 있다. 이 용어는 원래 금세기 초 중국에서 외래적인 것과 토착적인 것을 구분하기 위해 처음 사용했다고 한다. 양박사는 외국 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 지식을 다루는 머리의 구조가 서양식으로 되어있는 사람, 국제적 지식의 유통 과정에서 수입과 전파라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등의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 반해, 토박사는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 지식을 다루는 머리의 구조가 우리 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 조상 지식인이 생산해 낸 지식을 발굴하고 유통시키는 사람 등을 일컫는다. 보다 상세한 것은 다음의 두 글을 참조하면 된다. 한창수, "양박사 · 토박사를 아시나요 - 한국지식인 일그러진 자화상", 신동아 (1995. 2월호), pp.484-497. 정재영, "한국의 독창적 이론가들 - 천재인가 독불장군인가", 신동아 (1996. 1월호), pp.436-449.

변체계일 수밖에 없는 한국으로서는 중심체계에서 생산된 지식을 전수받아야할 형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술문화의 취약성을 틈타 중심체계에서 형성된 지식이 별다른 저항없이 들어온다면, 한국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중심체계의 지식을 매개하는 중개자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다.[31] 한국지식구조의 왜곡에 대해서는 다음의 지적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 그 동안의 외래이론의 소개, 도입은 모방적, 단편적, 피상적이었다. 충분한 설명없이 현학적인 언어를 나열하는 일, 이론의 전모를 밝혀주지 않고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일, 구체적 자료와 적절한 연결도 시키지 않고 원서에서 발췌한 일반적 진술만을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일, 착실한 번역보다 조잡한 모자이크를 더 즐기는 일, 따라서 부당하게 일반화시키는 일, 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도외시하고 덜 중요하거나 지엽적인 문제를 부각시키는 일, 이미 알려진 명제를 반복하는 일, 단편적인 소개는 해놓고 그 이상 정교화 작업은 하지 않는 일, 부분적인 이론을 전반적인 이론인 것처럼 소개하는 일, 비판없이 소개하는 일, 비판이 있더라도 모방된 비판이지 주체적이거나 자생적인 비판은 없는 일 등은 한국에서 외래이론 활용의 문제성을 드러내는 것이다.[32]

위의 비판은 우리 학계에 만연해 있는 원전읽기의 병폐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볼 수 있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이 원전이다'라고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논문을 쓰면서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는, 글쓰기의 권위적 근거가 될만한 그런 의미에서 원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33] 이러한 외국이론의 권위를 원전으로 모시면서 비판없이 무조건 숭배한다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반면 한국의 문화에 맞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읽는 독자들이 옳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고 하겠다. 이 점은 그냥 읽어 소개하는 것이나, 그것을 통째로 번역하는 일이나 다 마찬가지이다. 특히 번역의 경우는 쉬운 번역, 읽을 수 있는 번역이 최우선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김영민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번역한 어떤 책의 일부를 소개하면서,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우울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한글을 제대로 익힌 하이데거마저도 이 글을 제대로 해독할 수 있을지 의심이 생긴다고 하고 있다.

> 그 존재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도래적(到來的)이며, 따라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자유롭게, 그것에 부딪쳐 부서지면서 자신의 기실적(旣實的) 현(現)에로 스스로를 되던질 수 있는 존재자만이, 즉 도래적인 것으로서 등근원적(等根源的)으로 기재적(旣在的)인 존재자만이 상속받은 가능성

32) 이종각, 앞의 책(1990), pp.105-106.
33) 이러한 의미의 원전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가 좋은 참조가 된다. 김영민, "원전 중심주의와 우리 인문 학의 글쓰기", 제7차 문정포럼발표자료(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1995. 5. 19).

> 을 스스로에게 넘겨주면서 자신의 고유한 피투성이를 넘겨받고, '자기시대'에 대해 순간적일 수 있다.[34]

물론 하이데거의 철학은 단지 한글을 안다고 이해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난해한 철학일수록 그것을 번역하여 소개하는 학자는 최대한 읽을 수 있는 언어로서 전달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데는 그 어떤 반론도 제기될 수 없다. 위의 사례는 비록 철학분야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분야에서도 시사성을 가지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 점에 있어 김용옥의 지적은 더욱 단호하게 들린다.

> 번역이란 정보의 대중화·민중화, 즉 민주화를 뜻한다. 내가 알고 있는 민주화란 "누구든지 같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칸트의 번역은 우리말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칸트 철학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러한 전제가 없는 번역은 참다운 번역이 되지 못한다. 칸트의 저작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칸트에 대해 강의한다는 것은 칸트를 독점한 자가 그러한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칸트를 강요하는 일방적 부과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해방 후 오늘날까지 우리 학계를 지배해 온 "주입식 교육"의 정체다! 정보가 민주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정보를 독점한 자만이 특권을 누리게 된다. … 이런 상황에서는 수강자가 강의자의 칸트에 대한 이해의 타당성을 확인할 길이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토론(dialectic)이 부재하며 상호간의 자극.발전이 없게 되고, 따라서 그러한 학계는 정체되고 마는 것이다.[35]

사실 제대로된 번역은 한편의 논문, 하나의 저술보다 더욱 값질 수가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처럼 번역작업이 학자들의 학술업적으로서 20페이지 내외의 논문 한편보다 낮은 대우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에 있어 번역하기는 왜곡된 제도의 희생물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힘든 학술활동이면서 대접은 못받는 서러운 작업이기에 왜곡된 원전읽기, 모자이크된 지식생산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라도 번역작업을 논문작성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번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그와 같은 중요성에 버금가는 학술적 가치를 부여하는 데는 인색한 면이 많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내재되어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학술적 가치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필경 이것은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이다. 마루야마마사오의「日本政治思想史研究」라는 방대한 책을 번역한 김석근이 번역 후에 느낀 소감을 밝힌 글을

34) 김영민, "글쓰기로, 스타일로, 성숙으로", 제29회 해석과 비판을 위한 모임 발표회 주제발표자료 (1996. 6. 15), pp.9-10.
35) 김용옥,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 통나무, 1985), pp.40-41.

보면, 번역의 작업은 창작만큼이나 힘든 것임을 알 수 있다.

> 사실 자신의 생각을 직접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생각이 담긴 글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작업이란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이한 기술적인 작업이다. 그래서 흔히 창조적인 저작을 하는 사람은 남의 책은 많이 읽을지언정 결코 번역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고들 한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전통사회 특히 조선조사회에서 역관(譯官)들에게 할당된 사회적 지위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남이 생각하고 써낸 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일관된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놓는 작업은 결코 창조적인 저작과 서로 전적으로 배치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창조적인 저작으로 가기 위한 진정한 창조의 훈련으로 생각할 수 있다. … 게다가 번역은 단순히 일본어의 어떤 단어를 우리말의 어떤 단어로 일대일로 대치시키는 그런 단순하고 기계적인 작업 수준을 넘어서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떻든 간에 옮기는 사람이 생각하는 정확한 의미와 그것을 전달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아주 적절한 단어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 고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어떤 작품을 번역하는 과정과 작업에는 그 작품이 가진 학술적인 의미 외에 달리 독자적인 그 무엇이 있음을 쉽사리 부인해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36]

문헌정보학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어쩌면 더욱 왜곡된 원전읽기가 성행하고 있으며 번역하기 또한 불모지대라고 할 수 있다. 외국문헌을 모자이크하여 편집한 수준인 논문들이 적지 않으며, 그것도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선택이기 보다 무비판적이고 즉흥적이며 편의적으로 외국문헌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분야에 있어 왜곡된 학술문화의 폐해에 대한 지적을 살펴보자.

> 이 땅의 연구자들은 한편 허위의식에서, 다른 한편 현실적 필요에 따라 서양의 문헌에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고 의존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학문적 입장을 견지하는 데 장애가 되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연구자로 하여금 양의 동서에 놓인 현장들의 '단계'에 대한 혼란과 착각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서양문헌을 자꾸 읽는 사이에 그것에 중독현상을 일으켜 서양의 문헌이 전제로 하고 있는 서양의 도서관 현장과 이 땅의 도서관 현장을 마치 동일하거나 유사하기라도 한 것처럼 여기는 착각에 빠져 들고 말게 되는 것이다.[37]

사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국의 도서관현장이 전근대적인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의 이론들이 어떠하다는 식의 무비판적인 소개는 우리나라 도서관현장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읽는 독자는 그게 무슨 말인지

36) 마루야마마사오, 일본정치사상사연구, 김석근 옮김 (서울 : 통나무, 1995)에 실린 역자의 "번역 작업을 마치고 나서" 중에서 인용(pp.90-91).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선진 외국의 이론은 그들의 도서관 수준에서 파생된 것이고, 그것도 다양한 이론이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 중 자신의 논증에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하여 그것의 권위에 기대는 그런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문헌들을 파상적으로 인용하거나 소개하지만, 정작 한국의 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기본텍스트는 번역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 대해 이용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기본텍스트는 번역되지 않고 지금까지 처럼 외국 문헌을 단편적으로 인용하는 형태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학술적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생산되는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을 보면 대개 외국(특히 미국)의 이론들로 무장되어 있다. 이 논문들은 대부분의 경우 도서관선진국의 최신.첨단 이론을 사용하고 각주(脚註)에 그 출전을 밝혀두고 있다. 논문의 구도상 각주가 본문을 받쳐주고 있지만, 외국 이론들을 단편적으로 인용하고 그것들을 짜집기하는 데 골몰하는 연구자의 의식(또는 무의식) 속에는 본문이 각주를 떠받들고 있는 지도 모른다.[38]

식민성 극복의 기제로서, 탈식민성을 획득할 수 있는 실천전략으로서 우리는 원전읽기와 번역하기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 원전이라는 무지개를 무작정 좇아가는 것보다 원전을 제대로 읽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그것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줏대있는 지식인으로 변신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변신은 원전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된다. 역설적이지만 이 전략은 선진외국의 수준이 높은 도서관 문화의 저변을 이루는 기초개념과 기초이론에 관한 원전을 많이 읽어내는 데서 얻을 수 있다.[39] 그러나 그러한 원전을 읽을 때는

37) 김정근, "주제접근법에 의한 대학도서관 장서개발 모형연구", 도서관학논집 23집(1995. 겨울호), pp.323-324.

38) 이용재, "기본을 찾아 떠나는 여행 - 한국 문헌정보학 연구와 외국텍스트 번역의 문제", 열한번째 토론마당 발표자료(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공동작업실, 1996. 8. 17. 안동 병산서원), p.4.

39) 참고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에서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과 도서관현장의 개척에 중요 관점을 제공해 온 아메리카 문헌정보학의 고전들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읽고 번역해야 한다면서 리스트를 만든 적이 있다. 이들은 192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70여년에 걸쳐 생산된 것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서명만이 비교적 친숙하게 알려져 왔으며 그 내용은 학자들에 의한 간헐적 인용과 소개가 있어 왔을 뿐, 제대로된 우리말 번역을 통한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소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다.

- C. C. Williamson, Training for Library Services, 1923.
- S. R. Ranganathan,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1931.
- Pierce Butler, 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1933.
- J. Periam Danton, Book Selection and Collection: A Comparison of German and American University Libraries, 1963.
- Jesse H. Shera, The Foundations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1972.
- Jesse H. Shera,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1976.
- Allan D. Pratt, The Information of the Image, 1982.
- D. J. Foskett, Pathways for Communication: Books and Libraries in the Information Age, 1984.
- Michael K. Buckland, Redesigning Library Services : A Manifesto, 1992.
- Michael H. Harris & Stan A. Hannah, Into the Future: The Founda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the Post-Industrial Era, 1993.
- Walt Crawford & Michael Gorman, Future Libraries : Dreams, Madness & Reality, 1995.

우리의 역사적·사회적 특수한 현실문제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하여 선택하면서, 정확하게 읽어내고 비판적으로 수용함을 전제로 해야 한다. 우리의 현실변화에 도움이 되는 원전들을 많이 발굴하여 번역하는 일은 우리의 잘못된 원전읽기, 유행에 따르는 원전읽기, 비주체적인 원전읽기를 지양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40] 사이드(Edward W. Said)의 방대한 저서인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을 번역한 박홍규가 번역후기에서 지적한 아래의 말은 우리 학문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 한국의 학자들이 충실한 번역과 소개를 통한 문헌축적에 노력하지 않는 한 한국의 장래는 밝지 못하다. 이는 오리엔탈리즘의 식민지적용 문제 - 식민지내의 귀족화현상으로 비판되어야 마땅하다. 예컨대 일본의 학문이란 아직도 번역이 중심이고, 그것은 중요한 전통이 되어 있다. 그것은 정확한 소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조롱되고 있다. … 누구나 원서읽기를 학문자체로 혼동하는-그것이 한국의 학문이다!-경향을 보이기도 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부터 모든 고전을 원서로 읽을 재주도, 돈도, 시간도, 흥미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교수들이 원서주의에 젖어있는 반면에 일본의 교수들은 열심히 번역을 하고 외국을 정확하게 소개한다. … 그 결과 한국에서는 번역이 대학원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정도로 오해되고 전락되어 있으나 일본에서는 초대가급이 평생 번역을 한다. 한국의 대가는 번역 따위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며 40세만 넘으면 케케묵은 옛날얘기로 평생을 권위로 이끌어간다. … 어떤 책에 대하여 소소한 얘기들은 수도 없이 많고, 몇개의 관련된 석박사 논문이 나와도 원전은 원전으로 신비 속에서 보존되는 나라가 한국이다.[41]

이제 더 이상 번역은 반역이 아니며, 비극적인 결과가 되어서도 안된다. 번역은 그동안 우리가 숭배해 온 서양의 텍스트와의 지적대결이며, 우리나라 현실의 제반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데 필요한 참조점이 되며, 아울러 공동의 사고, 공동의 학문문화를 조성하여 우리 학문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촉매가 되어야 한다.

3. 2 학술운동의 전개

앞서 제시한 주체적인 학술연구가 학문연구자 개개인의 내적 역량의 성숙을 기하는 실천전략이라면, 학술운동을 강화하는 것은 보다 집단적인, 사회적인 역량을 높여주는 전략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학술운동은 학계의 민주화와 새로운 학문적 연구를 지향하였던 80년대의 한국사회

40) 이용재는 한국의 도서관 발전의 수준을 높이는 데는 자체적인 노력과 주체적인 전략이 무엇보다도 중 요하지만, 차선책으로 기본택스트를 선정하여 번역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기본텍스트를 선정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기본텍스트에 속하는 저작들은 첫째, 핵심적(essential)이어야 한다. 둘째, 균형적(balanced)이어야 한다. 셋째, 구조적인(structural) 성격을 띠어야 한다. 이용재, 앞의 글, p.3.

41) Edward W. Said,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역 (서울 : 교보문고, 1995)에 실린 역자의 "옮기면서" 중에서 인용 (pp.577-579).

42) 김동춘, "학술운동론", 산업사회연구 2집 (1987), pp.231-236.

과학계의 움직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용어이다. 김동춘에 의하면, 과학운동 또는 연구자운동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학술운동은 80년대의 사회운동과 논쟁의 전개에 추동받았으며, 보수적인 학계의 자기반성의 흐름과 더불어 지식인들의 사회현실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그에 따르는 공동연구활동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42]

우리나라에 있어 80년대는 사회과학의 시대라 불릴만큼 사회과학의 논쟁이 많았던 시기이다.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성격의 논쟁(흔히 사회구성체 논쟁이라 부른다)에서부터 한국 근현대사 논쟁, 한국 현실문제의 본질과 제반 정책에 관한 논쟁, 한국사회 변혁에 관한 논쟁 등 가히 사회과학의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치열한 논쟁이 많았다. 이러한 80년대 학술운동의 주된 담론은 소장학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진보적 학술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기에, 그들을 제3세대학자군[43] 이라고 분류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진보적 학술단체를 결성하여 한국사회의 누적된 모순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 사회운동과 사회과학의 만남을 시도하였으며, 사회과학의 대중화와 사회운동의 과학화를 지향함을 주된 목적으로 내세웠다. 특히 88년 학술운동단체가 연합하여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44] 곧이어 이들 학술운동단체들은 학술단체협의회를 조직하여 보다 연대적인 활동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학술단체협의회의 창립선언문을 보면 그들의 학술운동이 지향하는 과제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 일제강점하의 식민지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면의 역사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선학들의 고뇌에 찬 모색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의 학문풍토는 식민지적 구각을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 또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을 망각한 서구선진자본주의사회의 학문적 권위에 대한 맹목적 신앙은 단지 기성체제의 이익에 봉사하는 데 머물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학문과 사상과 자유에 대한 가혹하고 집요한 탄압은 학문의 정상적 발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왔으며, 학문사회의 갖가지 그릇된 제도적 장치들과 더불어 학문연구가 역사적 전망을 잃어버리고 사회적 책임에 등을 돌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는 진리의 참된 구현을 가로막는 이러한 장애물을 남김없이 무너뜨리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모든 기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치의 사심과 나태도 허용하지 않는 과학적 현실탐구의 올바

43) 이 용어는 1988년 6월 3-4일, 10개의 학술운동단체들이 모여 학술단체 연합심포지움이 열렸을 때, 기조발표를 한 김진균에 의해 제기되었다. 초고에서는 '제3세대학자군'이라고 하였지만, 세대구분에 대한 몇가지 문제제기가 있어 발표문에는 '제3의 학자군'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했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제1세대는 식민지 지배교육을 받음으로써 일본학문지향성을 미처 탈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학자군으로, 제2세대는 대미종속적 질서로의 재편하에서 미국적 세계관에 의해 자신의 학문적 지향을 내면화한 학자군, 그리고 제3세대는 유신체제가 빚어내는 민중적 고통에 고뇌하면서 자신의 학문적 작업을 현실 운동의 중심과 연관시켜 전개하고자 한 학자군을 의미한다.

44) 10개 학술운동단체에 소속된 진보적.실천적 소장연구자들이 연합하여 개최한 이 심포지움은 대규모 학술회의로서 총 1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60명이 발표 및 토론에 참석하였다.

45) 학술단체협의회 창립 선언문(1988년 11월 5일)의 일부.

> 른 자세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또한 이는 학문을 통해 사회민주화와 민족통일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우리의 정당한 실천적 노력과 직결되는 것이다. … 학문연구와 학술운동은 결코 상아탑 속에 자족할 수 없는 것이다. 연구활동의 조직화를 통해 과학적 인식을 획득하고 그것을 대중과 공유하는 일은 학술연구자의 역사적 임무인 것이다.[45]

결국 학술운동은 학문이 사회현실과 동떨어진 진리탐구가 아니라 현실변혁의 기수로서, 사회운동의 한 영역이며, 학자는 현실변혁의 이론가로서 또는 운동가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된 논리를 내세우며 보수적이고 현실안주적이었던 한국의 사회과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된 비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46]

첫째 너무 진보적인 부문에 치중하여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부문과의 토론이 부족하였다는 점, 둘째 논쟁의 과정에서 논리성의 부족, 주장의 경직성이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셋째 성급한 논리의 비약과 함께 현실을 이론틀에 무리하게 끼워맞추려는 교조적 병폐를 노출하였다는 점, 넷째 학자중심의 과도한 이데올로기적 취향이 우세한 반면 대중과 유리된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80년대의 이러한 흐름은 90년대 들어 오면서부터 '분화'와 '확산'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흐름으로 인해 다소 주춤한 상태에 있다.

80년대 한국사회과학의 학술운동에 대한 자성적 평가에 기반을 두고 현단계 한국문헌정보학이 지향해야할 학술운동의 방법론을 도출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문헌정보학의 주된 연구대상인 도서관현장은 아직도 정치적·문화적·사회적 조건이 후진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변혁적인 학술운동이 유효하다고 본다. 둘째, 외국의 진보적 변혁적 이론틀을 무리하게 끼워맞추기 보다는 그것을 비판적으로 이해하여 적용하며, 자생적인 이론축적을 통해 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한다. 셋째, 대중 특히 도서관의 이용자집단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 분야에 있어서의 학술운동은 이른바 연구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며, 한국사회의 문헌정보현상을 대표하는 도서관활동에 주역으로

---

46) 이 문제점들은 다음의 자료에서 정리하였다. 김대환, "사회과학의 시대, '운동'과 '과학'의 치열함 만남", (중앙일보 1990년 신년호 별책부록) 80년대 한국사회 대논쟁집 (서울 : 중앙일보사, 1990), pp.12-18. 이 병천, "한국사회과학의 진단과 반성", 사회철학(영등사회철학연구소) 창간호 (1993), pp.60-66. 조선일보 (1990. 1. 12) 관련기사 참조.

47) 전국적인 규모의 학술단체 이외에도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학회(연구회)가 있다. 후자의 경우는 대부분 관련학과의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 대학교 도서관학회(도서관학보 발행), 성균관대학교 동문들로 구성된 한국비브리오학회(한국비브리오 발행), 연세대학교 도서관학회(도서관학회지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회(도서관학 발행),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연구회(문헌정보학연구회보, 문헌정보학보(1-4집), 문헌정보학(5집 이후) 발행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문헌정보학의 한 특징으로 여겨질 정도로 많은 대학에서 학회(연구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는 현장사서들과 연계되는 사서직운동 또는 도서관운동의 성격을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한국문헌정보학계는 여러 형태의 자생적인 학술단체(학회, 연구회, 협(의)회, 연구소 등)가 생겨나 활동해 왔다.[47] 이들은 대개 연구자나 대학(원)생들이 주축으로 참여하는 강단중심의 단체이며, 현장사서들이 참여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현장사서로서 당당하게 참여하는 양상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운동성을 표방한 단체도 없지 않았다. 한국문헌정보학계의 90년대 특징 중의 하나로서 설명될 수 있을 정도로 운동성을 지닌 이들 단체들은 90년대에 들어 등장하였다. 주요한 사례가 될 수 있는 단체로는 문헌정보학과대학원연합연구회(문원련),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모임인 공동작업실, 서울.경인지역의 젊은 사서들로 이루어진 도서관운동연구회,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창원지역의 마을, 직장, 학교에 도서관갖기 및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경남정보사회연구소 등을 들 수 있다.

문원련은 전체 14개 대학원(서울 8개, 지방 6개) 중 8개 대학원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결성되었다. 그러나 창립당시의 원대한 목표와는 달리 현재 소강상태에 있다.[48] 공동작업실은 1989년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기생을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결집된 모임으로서 현재 석·박사과정 재학 및 졸업자 약 3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학기논고집」(1996년 현재 1집 - 6집 간행)을 통해 자신들의 학술운동적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도서관운동연구회는 삶의 질을 생각하는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와 실천으로 도서관운동의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모임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성사서의 고용불안정 문제를 다루는등 현재 기관지인 「도서관운동」(1996년말 현재 1집-5집 간행)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5년 10월 개소한 경남정보사회연구소(소장 : 이은진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정영애 창원대 교육학과 교수)는 창원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마을, 직장, 학교도서관 갖기 및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마

48) 창립선언문(1991. 4. 27)을 보면 문원련은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 관점에 입각하여, 선학들의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도서관과 정보관련 제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미국식 표준도서관학을 보완, 대체할 대체패러다임을 창출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조직적 실천단체'라고 스스로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문원련은 당시로서는 대학원생들로 이루어진 단체이지만, 향후 대학원의 틀을 벗어나 진보적 학술단체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들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학술활동을 통해 연구방법론을 새롭게 모색하고, 연구의 대상을 심화, 확대함으로써 한국사회 성격에 조응하는 한국적 문헌정보학의 정립을 모색할 것이며, 둘째, 한국의 도서관계에서 일어나는 제반 도서관운동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을 통해 운동과 결합함으로써 실천성을 담보할 것이며, 셋째, 민족적, 민중적 문헌정보학의 확립노력을 통해,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해결에 동참할 것이라고 하였다.

49) 이 연구소는 현재 창원시내 아파트단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복지회관을 창원시로부터 운영권을 위 탁받아 마을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다음 문 헌을 참조하면 된다. 양재한, '창원지역 공공 및 마을도서관 이용자 확보 방안' 도서관학논집 23집 (1995. 겨울호), pp.211-252.

50) 이용훈, "올바른 전문직운동으로서의 사서직 운동을 전개하기를 바란다", 전국사서협회소식 5권 3호 (1995. 12), p.2.

을도서관을 통한 도서관사업 뿐만 아니라 건전한 정보문화 형성사업, 사회교육사업, 문화예술사업을 연구.실행하고 있는 시민운동단체이다.[49]

또한 참다운 한국의 도서관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1990년 10월 전국의 젊은 사서들이 모여 결성된 전국사서협회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국사서협회는 우리나라 도서관운동사에 있어 최초의 사서직운동을 전개한 단체[50] 로서 기관지인「전국사서협회소식」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으며, 한국도서관계에 특정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어김없이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51]

최근 들어 전국사서협회가 지향하는 사서직운동은 사서직의 대사회적 책무 수행과 직업윤리를 강조하는 새로운 전문직운동을 제안하고 있다.[52]

이와 같은 강단중심의 단체와 운동성을 표방한 단체들은 제각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나름대로의 행로를 걸어왔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현장운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학술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개방되고 연계되어야 한다. 학술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한국의 문헌정보학과 도서관현장의 발전을 도모하여 일반 대중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양하게 분화된 이들 단체들은 연합하거나 결합하여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술운동적 차원에서 학계의 연구자들과 현장사서들이 연계되면, 단계적인 실천방법을 설정하여 그에 따라 실질적인 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 순서는 우리 학문의 기반과 현장의 변혁을 다져내는데 주력한 후 차츰 그 외연을 확대하는 단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학문적 내실을 먼저 확보하고, 도서관현장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첫번째 단계로서는 연구자와 현장사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연구소모임을 활성화하여 한국사회의 도서관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실천적인 이론을 생산하여 도서관의 변혁을 유도해야 한다. 현장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으며, 현장의 일상적 움직임을 전제하지 않는 연구만으로는 적실성있는 이론을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하루하루 바쁜 일상생활에 휩쓸려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갈 이론과 방법을 접할 기회가 적은 현장의 사서들만으로 도서관의 변혁을 이루는 데는 역량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기에 강단의 연구자들과 현장사서들이 연대하는 그러한 구조를 통해 한국적 문헌정보학, 탈식민적인 연구성과들을 축적시켜내야 한다. 이와 같은 연대를 통해 강단은 현장으로부터 배우며, 현장은 강단으로부터 배우게 된다.

그러한 연구소모임을 통해 자체내 역량

51) 전국사서협회소식지는 1996년 6월 현재 5권 5호(통권 25호)를 발행하였으며, 여기에는 협회관련문서, 협회 및 분회 소식, 도서관계 각종 자료, 실무관련자료 등을 주로 수록하고 있다.
52) 이용훈, 위의 글, p.2.

이 보다 성숙되고 나면 두번째 단계로서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나 현장사서들은 한국사회과학계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외부적인 연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자체적으로 한국사회과학의 담론 구조에 참여하든지, 타분야 사회과학자들과 함께 공동연구의 형식을 취하든지, 가능한 방법들을 모두 동원하여 사회과학으로서의 문헌정보학의 외연을 확대시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한국사회과학계에서 차지하고 있던 왜소한 지위를 높이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한국사회과학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수행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4. 결 론

지금의 한국 도서관계는 정보환경의 변화 뿐 아니라 도서관 내외부적인 사회환경변화의 틈바구니에서 실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 땅의 도서관을 종말의 길로 내몰려고 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와중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도서관을 건설해 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려는 움직임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기술 호사가들의 입에서부터 행정관료의 정책입안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서관의 적들[53] 이 내뿜는 화설은 대단한 위력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도서관, 대중의 정보문화환경을 선도할 수 있는 도서관을 이 땅위에 뿌리내리려는 목소리는 어쩐지 왜소하게만 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한국문헌정보학의 목표가 이 땅에 참다운 도서관문화를 건설하는 데 압장서는 것이라면, 연구자나 현장사서들 모두는 보다 더 현실변혁적인 자세로 목표달성에 매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 점에 있어 이용남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그 여운이 길게 느껴진다고 하겠다.

> 현장개선 노력에는 학자들의 '행동적인' 참여도 우리의 현실에서는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강단과 글쓰기가 학자들의 고유한 설자리임에는 틀림없으나,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이 크고 그 동안 전문직의 많은 인력이 갑자기 강단으로 흡수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학자들이 상아탑적 사고만을 고집하는 것은 현장에 대해 죄스러운 느낌이다. 이론생산과 현장에서의 실천이란 경계는 원론적으로는 당연하겠으나, 우리의 여건은 현장의 힘의 부족을 보완해 주어야만 하는 특수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54]

그렇다. 허약한 도서관현장에 힘을 불어넣어 저발전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행

53) 도서관의 적들(enemies of the library)은 크로포드와 고어먼이 도서관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을 비유하여 사용한 말이다. 그들은 도서관의 적들 중에서 가장 악의적인 그룹으로 도서관직 내부에 있는 사서들과 교육자들을 꼽고 있다. 즉, 도서관직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사서들과 교육자들로서, 그들은 도서관직으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면 벌써 도서관직이라는 명칭과 실무로부터 벗어났을 사 람들이라고 하였다. Walt Crawford & Michael Gorman, Future Libraries: Dreams, Madness & Reality, (Chicago : ALA, 1995), pp.104-113.

54) 이용남, "우리 도서관문화의 현주소", 제34회 전국도서관대회주제발표논문집 (한국도서관협회, 1996), p.12.

동적인 문헌정보학이 바로 이글의 논지인 발전전략적인 접근인 것이다. 한국도서관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인지하고 이것들을 남에게 의존하는 형식이 아닌, 보다 주체적인 힘으로서 극복하는 데 연구자나 현장사서들이 힘써 정진한다면, 한국도서관 뿐 아니라 한국문헌정보학의 미래가 밝게 펼쳐질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